

2019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문화예술교육포럼 속기록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일시: 2019년 5월 24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동 지하 1층 멀티프로젝트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C Program,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의: C Program 김정민 매니저 (min@c-program.org)



- (신혜미)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포럼을 주최한 C Program의 신혜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포럼을 주최한 C Program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C Program은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실험들을 투자하고 만들고 풀어가는 회사입니다.

특히 플레이펀드에서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다양한 제3의 공간들을 만들고 계획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나뉘드린 리플릿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포럼은 주관사이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의 협력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낯설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에 대해서 세 분의 연사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그래서 과정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뉘드린 리플릿의 뒷장에 슬라이도라는 웹페이지에 주소가 적혀있을 겁니다. 그 주소에 코드번호를 넣고 들어가시면 포럼 중간중간에 떠오르시는 질문을 적으실 수 있게 해놨어요.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답이 끝난 후 Q&A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제3의 공간이 있으세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공간이 있으신가요?

조금 어려우시면 지난 주말을 한번 떠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은 오늘과 다르게 조금 날씨가 우중충했었는데요. 집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시간을 보내셨다면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 우리 어른들은 집이나 일터가 아닌 휴식을 위하여거나 혹은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가고 있는 공간들을 한두 곳은 떠올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공간을 제3의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제3의 공간은 도대체 어떤 공간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이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은 1980년에 사회학자가 The Great Good Place 책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입니다.

이 책에서는 제3의 공간을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집이 제1의 공간인 집, 그리고 2의 공간인 일터가 아닌 공간들 중에 모든 사람들을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공간, 대표적으로는 카페나 서점 이런 곳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3의 공간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간의 목적이 하나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지가 않고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중성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화가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그리고 누구나 경제적이거나 물리적 제약이 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에 이용하는 개개인들이 한명마다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희가 처음 질문을 드렸을 때 떠올린 공간의 속성하고 맞는 것 같으세요? 1980년도에서 2019년도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집 앞 카페 이렇듯 카페를 많이들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카페에 대표적인 브랜드인 스타벅스의 2019년의 미션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커피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고 미션일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 ‘아, 개개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포지셔닝을 목표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스타벅스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자 또는 여럿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2019년의 공간은 앞에서 올덴버그가 주목했던 속성들 외에 개개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말고도 혹시 떠오르는 공간들이 있으신가요?

2019년에 되게 많은 분들이 문화복합공간 곳 같은 곳들을 뽑아주시기도 했어요. 이런 공간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취향이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이 공간에서는 북토크나 살롱 등이 열리고 거기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깐요. 그래서 제3의 공간을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물리적으로 연결된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 느슨하게 연결된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제3의 공간은 앞서서 설명 드렸던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면서도 새로운 영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저희에게 좋은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렇다면 이런 공간은 우리 어른들에게만 필요할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떨까요?

아이들에게도 제3의 공간이 필요할까요?

저희는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은 도대체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요?

다음 세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키워드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래 세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자극을 받을 수 있어야 되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어야 되고 시도하고 실험하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 실패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아야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학교입니다.



어른들한테는 일터가 제2의 공간이 되지만 아이들한테는 학교가 제2의 공간이 됩니다.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들도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학교 근처에서 학교를 지켜보며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본 결과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잘 맞춰서 시스템이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아이들이 각자의 속도로 자유롭게 넘나들며 배우기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더 다른 제3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제2의 공간도 가봤으니까 제1의 공간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1의 공간은 집인데요.

아이들이 가구의 성격에 따라서 개별적인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예체능 사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년 통계청에서 사교육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예체능 사교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예체능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 차이 나거나 사교육비를 들이는 비율이 세 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 줄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나가 예체능 사교육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가계의 수준이 가계의 격차가 아이들의 경험의 차이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아이들에게는 정말 다양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경험들이 필요하고 저희는 제3의 공간에서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C_program

이렇게 해석해보았습니다.



(출처: C Program)

제3의 공간들이 아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중에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2019년에 제3의 속성이었던 새로운 영감과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어른들도 이런 공간의 속성들이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면서 배워나가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라는 속성도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제3의 공간을 이용할 때 저희 어른들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가서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아이들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경제적인 격차, 혹은 물리적 장벽, 심리적 장벽이 없이 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많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 이런 공간, 이런 곳이 있을까요?

저희는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이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공간들에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공간들은 아이들이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널려 있는 공간이에요.

굳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공간을 방문하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영감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공간이죠. 저는 이러한 공간들이 아이들에게 조금 열린다면 아이들에게 훌륭한 제3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3의 공간으로써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을 상상할 때 항상 떠올렸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헬로우뮤지움, 서울시립과학관, 느티나무도서관인데요.

저희가 이 세 곳의 관장님을 이곳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지켜보면서 응원하던 기관이었는데요. 이번에 포럼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관점으로 관장님들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알지 못 했던 새로운 키워드들을 많이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관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키워드가 여러분이 보고 계신 키워드인데요. 보고 계시니까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C_program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아이다움

#누구나

#복돈음

#관계

#실험

#숨을 수 있는

#말을 건네는

(출처: C Program)

그렇다면 이 세 개의 기관의 관장님들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으로써의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실 분은 헬로우뮤지움 김이삭 관장님이신데요. 헬로우뮤지움은 국내 최초의 어린이미술관으로 2007년에 개관해서 2014년에 금호동 동네놀이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놀이에 경험할 수 있게 해놓은 기관입니다. 저희도 2014년부터 파트너이자 후원사로써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응원하던 공간이었는데요. 저희가 포럼을 준비하면서 관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하게 발견했던 점은 헬로우뮤지움은 아이들이 정말 어렵게 예술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며 신경 쓰는 공간이구나 하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술을 만날 때 생각보다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이가 작품과의 관계를 맺고 작품을 만드는 작가와의 관계를 맺고 작품에 담긴 사례와 관계를 맺을 때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라는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김이삭 관장님을 모시고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삭 관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삭) : 안녕하세요. 헬로우뮤지움의 김이삭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뜻깊고요. 저는 헬로우뮤지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아이들이 가고 싶은 미술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미술관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나요? 저는 미술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지금 한 미술관을 선택해서 가고 싶은 미술관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어떤 곳을 떠올리시겠어요? 저는 뒤에 화면에 있는 아부다비에 새로 생긴 루브르뮤지엄을 가고 싶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고 싶은 미술관을 생각할 때 누구와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가고 싶은 곳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이와 함께 간다면? 이에요. 아이와 함께 가고 싶은 미술관이라면 어떤 곳을 떠오르시겠어요? 많은 어른들이 실제로 아이와 함께 가고 싶은 미술관을 생각할 때 함정에 빠지고는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아이와 가고 싶은 미술관에서 아이를 팔호 치고 내가 가고 싶은 미술관을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아부다비 뮤지엄에도, 루브르뮤지엄에도 어린이를 위한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 저한테 아이와 같이 가고 싶은 미술관 세 개를 뽑으라면 아부다비 루브르는 세 개 안에 못 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미술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가고 싶은 미술관은 어떤 곳일까요? 아이들은 어떤 미술관을 가고 싶어 할까요? 저는 그냥 항상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미술관이란 아이들이 생각하는 미술관이란 무엇인지 그 답을 먼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애들아, 미술관은 뭐 하는 곳이니? 미술관 하면 뭐가 떠올라?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다소 참담하지만 굉장히 솔직한 아이다운 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술관은요.

첫 번째, 뛰면 안 되는 곳이고요. 두 번째, 부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이들의 솔직한 답변인데요. 최근에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뮤지엄 저서에서도 뮤지엄에 대한 관객들의 불만사항을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우뮤지엄과 C Program은 이와 뮤지엄의 고질적인 삶과 거리감 그리고 아이들이 받는 거리감을 해소하고자 4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미술관 형태를 만들어보고자 실험과 도전을 해왔습니다.

아마 어린이미술관 하면 첫 번째 있는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아동친화적인 환경, 낮게 걸린 좋은 작품들. 그런데 헬로우뮤지엄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미술관 형태를 찾다보니깐요. 실제로 좋은 작품과 아름다운 건축물만 가지고 어린이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로우뮤지엄에서 어린이들에게 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가장 아이답게 예술을 경험하는 방법이고요. 그것을 저희 미술관에서는 아트동동이라고 부릅니다.

아트동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과 작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콘텐츠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영역을 또 다시 세 개의 원칙을 가지고 만들고 제공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원칙들이 어떻게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담겨지는지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헬로우뮤지움의 원칙

Greeting

마음을 열고
반가움을
나누는 경험

Engaging

몸과 마음의
깊이 있는
참여

Bridging

작품과 일상
연결

(출처: 헬로우뮤지움)



첫 번째, 그리팅인데요.

제가 쓴 것처럼 마법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관 이름이 헬로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사하고 아이들을 환영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저희 미술관에서, 저희 미술관이 굉장히 작은 미술관이에요. 작은 미술관에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미술관에 오면 모여 앉아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도슨트고요. 도슨트 앞에 앉아있는 아이를 보면 굉장히 신이 나 있는 아이도 있고 굉장히 두렵고 소극적인 아이도 있고요.

또한 엄마와 분리되지 않는, 엄마와 분리를 시킬까 봐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지금 나누는 인사를 통해서 여기서는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속도대로 이 미술관을 경험하면 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면은요. 아이들은 금세 이 미술관의 주인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참여입니다. 인게이징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 미술관에 설치했던 작품인데, 미술관을 설립하는 준비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미술관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니? 하니 아이들이 실망시키지 않는 답을 주었습니다. 낙서요. 그 낙서도 작가의 작품 위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사람의 얼굴 위에 그리고 싶어요. 그런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헬로우뮤지엄은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의 낙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김다운 작가라는 굉장히 젊은 작가와 콜라보해서 동네 주민들의 얼굴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껏 낙서할 수 있도록 만든 전시물이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면서 이 동네사람들 동네주민들 얼굴에 짓궂게 낙서가 되어 있는 거를 보고 두려웠어요. 오늘은 사달이 나겠구나. 그런데 실제로 이 작품의 힘은 저희 미술관과 동네 사이에 있던 벽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동네주민들이 매일 짓궂게 낙서되는 자기의 얼굴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요. 친구들이나 주변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시켜주고

이런 작가와 관계된 참여가 아니라 사실은 동네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체험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옆에 작품을 보면요.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다양한 참여들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브리징. 어떻게 다시 아이들의 삶과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원칙입니다.

작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저희 미술관 주변을 동네작가가 정해솔이라고 하는 작가가 자세히 보면 헬로우뮤지엄과 파라솔 뒤에 있는 놀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낙서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위에 아이들이 연장해서 그리는 거는 헬로우뮤지엄이 있었던 금호동이 아니라 자기의 집 주변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을 법한 놀이터에서 나의 삶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찾아내고요. 미술관에서 집까지 가는 다양한 상상들을 하면서 일상과 미술관에서 봤던 작품과 활동들이 연장이 됩니다.



헬로우뮤지엄은 다소 어려운 주제의 작품들도 선보이는데요. 노워라고 하는 평화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는 어떤 시민의식에 관한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를 보고 있는 어린이들이 야채와 채소를 가지고 전시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엠흘은 저희 전시 관람을 본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어떤 관람 후 학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집에서 아이들이 직접 작가의 작품을 연장해서 체험해보는 활동들을 SNS에 올린 것을 저희가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미술관 온 식구들이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운영을 했고요. 2015년서부터 4년간 11번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66명의 작가들이 함께 했고요.

이렇게 아트동동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술을 가장 아이답게 만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여기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예술계에. 그런데 예술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술의 효과, 예술교육의 성과,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측정하고 증명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로우뮤지엄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성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헬로우뮤지엄에서 우리 아트동동, 아이답게 예술을 누린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미술관, 뭐하는 곳이니?'

정말로 아이들의 답변이에요. 행복한 곳이고요. 특별한 곳이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린 거를 보면 여섯 살 아이가 집 모양을 그려놨죠. 여기가 제3의 공간인지 1의 공간인지 넘나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런 웃긴 미술관이에요.

이런 개인적인 해석이 담긴 나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표현들이 끊임없이 미술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답변이에요. 미술관 헬로우뮤지엄은 가까운 디즈니랜드라는 표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미술관 관객들이 남긴 피드백에 가까운, 친근한, 재밌는, 기쁜 이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들 많은데요. 실제로 관객의 성동구민은 저희가 있는 지역은 30% 미만입니다.

70% 정도는 전국에서 오는 관객들인데요. 멀리서 오는 관객들도 굉장히 가까운 미술관이라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량적인 성과도 볼 수 있어요.

정량적인 성과는 2015년도 굉장히 적은 관객 같지만 사립미술관, 작은 사립미술관 치고는 적은 관람객 수는 아닙니다. 이때서부터 4년 사이에 530%가 증가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김이삭) : 작은 미술관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고요. 하지만 대형미술관 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작은 숫자예요. 하지만 헬로우뮤지엄의 작은 7만 명 정도 되는 관객 수는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겁니다.

저희가 올 초에 이전에 있었던 미술관 건물에서 임대가 종료되어서 다른 새로운 동지를 찾아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굉장한 위기상황이었습니다.

미술관 소식을 듣고 저희가 올린 인스타그램이고요. 거기에 주민들의 답변입니다.

실제로 헬로우뮤지엄에 왔던 관광객들, 사랑했던 관객들이 지자체를 만나거나 구청을 만나거나 만날 수 있을 때마다 가서 미술관을 지켜 달라. 미술관이 이사 가지 않도록 성동구에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성동구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아이들 가진 엄마들이 우리 지역으로 미술관을 유치해달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관객이 움직였기 때문에 헬로우뮤지엄은 정말 미술관이 공간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지역을, 새로운 집을 여러 옵션 중에 저희가 심지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술관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관객의 힘으로 옆에 성동구에서 새로 지은 건물 안에 저희가 2층 공간을 들어가게 되었고요. 내부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텅 비어있고 아무 것도 없지만 저희가 이 공간에 또 다시 헬로우뮤지엄이 4년 동안 이루어왔던 아이에게 가장 좋은 아이다운 예술을 만나는 경험을 주고자 이 빈 공간에 아이들을 초대하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과 엄마들을 초대해서 미술관에 또 다시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곳에 미술관을 해 보는

게 꿈이었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한 40년 된 건물이라 비도 많이 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지은 건물에 들어가게 돼서 굉장히 여러 시설에 놀라고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6세인가 7세인가 되는 아이가 새로 입주할 공간을 그린 겁니다. 그전까지는 저는 이 공간에서 저런 직선과 철창 같은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그리고 난 뒤에는 이 공간이 얼마나 딱딱한지 그리고 이거는 헬로우뮤지엄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겠구나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 새로 만들어진 헬로우뮤지엄에서 하고 싶은 일들은 이런 거예요.

놀이, 일상. 일상에서 있었던 것들을 이곳에서 편하게 다시 만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저희가 5년 전에 금호동에 미술관을 만들 때만 해도 이와 같은 스트레스, 화풀이 같은 단어들이 많이 안 나왔는데요. 그 사이에 공기질만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짙어진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생각하는 헬로우뮤지엄에서 담아줬으면 하는 내용들이었고요. 올 가을에 새로운 헬로우뮤지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에 우리 모두 잠깐 상상 속에서 인천공항으로 한번 잠시 갔다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 곳을 여행하면서 입국심사를 끝내고 공항에 도착해서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이끌 때 어딘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민도 없이 집입니다.

집, 김치찌개.

그런데 헬로우뮤지엄 금호동에서 어떤 한 6살 정도 된 아이가 미술관을 찾아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미술관 직원들에게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서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랑 유럽 여행을 갔다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오는 내내 도착하자마자 헬로우뮤지엄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모님에게 보챘다고 그래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공항에 도착해서 집이 아닌 미술관으로 직진해서 미술관으로 바로 온 이런 정말 거짓말 같은 실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이렇게 미술관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아이에게 여행이나 외국여행이나 비행이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나의 편안한 공간, 제3의 공간으로 달려온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미술관으로 달려온 이 여자아이, 한 아이뿐만 아니라 미술관에 매년 이렇게 일주년, 이 주년, 삼 주년 때 아이들이 친구한테 하듯이 많은 생일카드를 씁니다.

마치 친구한테 쓰듯이 미술관 벽면에 생일카드와 메모를 남기는 아이들. 그리고 정말 신발을 벗고 막 미술관에 뛰어 들어오거든요. 뛰어 들어오는 아이들. 그리고 매일 아침 미술관을 꽉 채우는 단체 관람객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아이답게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그저 아이에게 웃고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공간을 만들었을 뿐인데 말이죠.

잠시 아이가 사는 세상,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많고요. 종일 아파트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 속에 자라는 아이들과 같이 미술관을 가신다면 어떤 미술관을 가시겠습니까?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헬로우뮤지엄은 지금 개관을 준비 중이고요.

그 개관을 준비하는 곳은 헬로우뮤지엄의 철학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천과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포스트에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를 읽으시면 가장 헬로우뮤지엄의 생각을 많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면 개관을 준비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미) : 김이삭 관장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술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미술관을 같이 만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들이 비행기에 막 내려서 미술관으로 올 만큼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단장님과 팀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정모 관장님이십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의 로고를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질문입니다. 맞춰보세요.

바로 지렛대인데요.

작은 돌이 큰 돌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의 원리처럼 아이들의 기초과학을 즐겁게 재미있게 배우면서 여기에 청소년들이 타겟이 되기도 하는데요. 과학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기초과학을 배우면서 큰 지렛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2017년에 개관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과학관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과학관인데요. 관장님이 과학관에 취임하시면서 이 개관을 준비하시면서부터 브이사이언스라는 아이들이 읽고 배우는 과학이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해보고 만들고 실패해보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오랫동안 해오셨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정모 관장님의 포럼을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과학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영재들만 하는 콘텐츠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과학이 일상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언제나 곁에 있는 콘텐츠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을 모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모) : 예.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박수)

-(이정모) : 되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해서 뭔가 노인을 위한 따뜻한 영화일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노인을 위한 나라만 없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한 나라도 없고, 청년을 위한 나라도 없고, 노인을 위한 과학관도 없고 어린이를 위한 과학관도 없고 청년을 위한 과학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사회자가 말씀하셨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립과학관입니다. 제가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일한다고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칭찬해 주십니다.

저 서울시립과학관 많이 가봤어요. 전시가 정말 빼어나더군요.

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가 했더니 바로 ‘관장님이 계셨기 때문이네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학관이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립과학관이라면 다른 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경궁 옆에 있는 지금의 국립어린이과학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대학 때 조교활동을 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어린이과학관 중에서 제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좋아하시나요?

다른 분은 제가 보기에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매년 국어수능 문제에는 15개의 비문학 문항이 나옵니다.

정치도 나오고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비문학은 문학 문항보다 어렵죠.

사람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 그 비문학 문항을 틀린 사람들은 반성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내가 아이들과 함께 경제를 좀 읽었어야 했는데 이거를 안 읽었더니 우리 학교 학생들이 놓쳤겠는데 안타까워하고 학생들은 내가 예술에 대한 책을 읽어야 했는데 내가 무식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과학일 때는 반성을 하지 않고 화를 냅니다.

작년에 수능 31번이 어려웠어요.

만류인력에 관한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왔더니 이게 과학문제냐, 국어문제냐는 이야기가 많았죠. 제가 어디서 그게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문제는 아니고요. 충분히 국어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제 딸이 어느 날 휴대폰을 가져왔더니 아빠 도대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제 실명이 달린 악플이 수백 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과학관에 있다 보면요. 되게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아이들은 나는 과학자가 되겠어! 하고 마음을 먹고 오고요. 엄마들은 아이를 과학자로 키워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오지만 나갈 때는 의기양양이 아니라 의기소침해져서 나가요. 아이들은 내가 과학자가 되는 게 힘들겠는데, 엄마는 우리 애가 과학자가 된다고? 턱도 없는데 (웃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학관에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시물들이 있고 되게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천재처럼 보입니다.

아, 과학은 천재들이 하는구나. 과학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난 똑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애는 아무리 봐도 천재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제 친구의 절반이 과학자입니다.

저는 그 친구들한테 한 번도 천재는커녕 똑똑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나아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고요.

딱 보면 똑똑한 것과는 거리가 먼데 약간 엉덩이가 무거운 정도인 것 같아요. 특별한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관을 지을 때 우리 과학관에는 천재들을 좀 안 보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과학관에 가서 의기소침해지냐면요.

천재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정말 천재거든요. 100년에 한명 나오는 천재예요. 그 과학자가 과학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학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선생님을 과학관에서 빼버리기로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저희 과학관에서 없어요. 비어놔했습니다.

마치 미술관처럼 보이는 공간이고요. 전시장 안에도 여유가 있게 해놔했습니다. 저기는 가장
그나마 뭐가 세워져서 볼 수 있는 관이에요. 대부분의 전시장은 앉아야 합니다. 다른 곳과 달리
앉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과학관에 와서 쓱 보면서 지나가잖아요.

보면서 지나가게 하지 말자고 했던 겁니다. 뭔가 앉아서 과학적인 거를 해보아야지 그렇게 해본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숫자 때문입니다. 227, 135, 1042.

2017년 기준으로 등록된 미술관이 227개이며 등록된 과학관이 135개고요. 등록된 도서관이
1042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학관이 135개? 등록된 과학관이 135개니까 실제로는 더 많죠.

제법 많은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정말 많은 겁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 갖게 된 것은 많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독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독일은 인구 7만 명인데 이게 뭐가 많아요? 하는데 독일은 동네가 작습니다.

되게 동네가 작다보니까 과학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처럼 천만 명이 모여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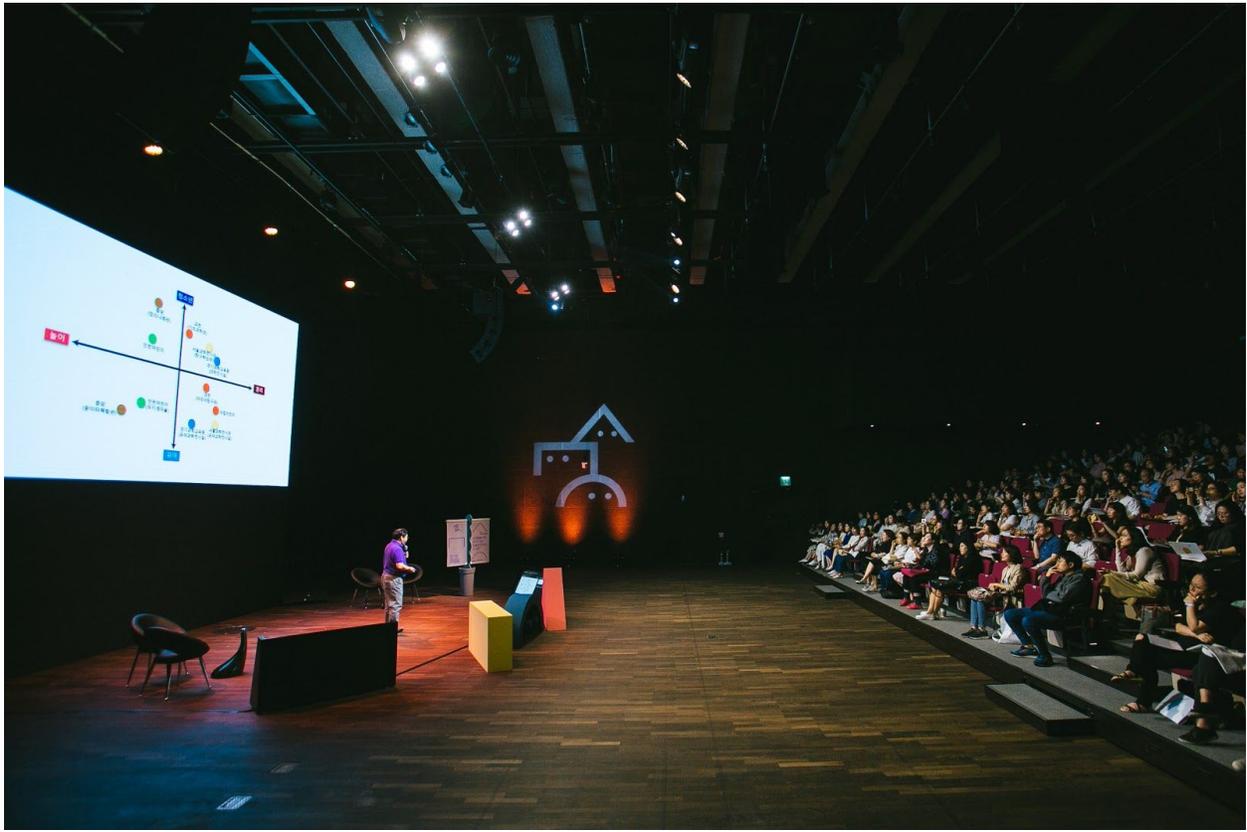
인구 38만 명 하나씩이면 서울은 구 당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 서울은 많이 적기는
합니다.

이렇게 135개나 있는 과학관을 만들고 있는데 또 하나를 만들 때 다른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를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 했던 것이 어린이를 위한 과학관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과학관.

보는 과학관이 아니라 일부는 보는 곳인데 보고 배우는 데 있어서 한 꺼풀을 덧씌워서 한
과학관을 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의 과학관들이 표를 만들어보죠.



위쪽으로는 청소년, 아래쪽은 유아 대상, 오른쪽은 원리대상, 오른쪽은 놀이중심이에요.

처음에는 청소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금방 그 과학관이 어린이, 유아 중심의 과학관을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오지 않거든요.

보통 기관을 갖다가 평가를 할 때 사람 수가 얼마나 왔는지로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에 줄아서 얼른 정책을 바꾸기 시작해요.

계산을 쉽게 하고요. 점점 청소년에서 어린이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영역에서 원리 중심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영역의 과학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국립과학관이 더 생겼는데 여기는 놀이 중심의 유아 중심으로 가는 과학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리 중심의 청소년, 원리와 청소년 중심의 과학관이 비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놀이와 어린이 중심으로 과학관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처럼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과학관이 과학관으로써 제대로 작용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서울시국립과학관도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맥락 없이 세 군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를 살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1970년대에 학교를 다녔는데요. 초등학교요. 그때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3.1%였습니다.

14세 이상 이하의 어린이가 42.5%였어요. 대부분이 어린이였죠.

갈 수 있는 곳도 몇 개 없었지만 몇 개 없는 곳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10년만 해도 10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청소년들이 14세 이하 아이가 16%, 노인은 11%였어요. 그런데 2017년 말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14세 이하의

어린이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2030년입니다. 노인이 두 배가 넘습니다. 거기서 10년 이상이면 세 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봤자 올 아이들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계속 만들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나라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과학관을 더 만들자고 합니다.

국립어린이과학관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한 곳이 좋으니까 다 따라서 만들자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미 대부분의 국립과학관은 이미 어린이과학관인데 뭘 더 어린이로 만들겠습니까?

국립어린이과학관이 잘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쫓아가는 건 어이가 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인구 구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니모과학관입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게요. 한 층에 커다란 실험실이 있습니다. 바깥이 다 들여다보는 유리시설인데요. 실험을 합니다. 아이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아빠가 실험하고 있고요. 아이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실험공간을 만들자고 했을 때 생각은 좋은데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험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과학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아이들이 하겠어요.

아이들은 과학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과학의 지식들을 흡수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아이들에게 실험을 시키는 게 지루하고 귀찮은 일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좋아하는 아빠가 하는 장면을 보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출처: 서울시립과학관)

우리 과학관에서 뒤에다가 뒤에 숲이 있거든요. 거기에 새집을 달았습니다. 새집을 얼마나 크기로 만들어야 할지 해서 새집을 나무를 잘라서 만들었는데요. 애들이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아빠랑 같이 해요. 모집을 할 때부터 가족이 같이 와야지만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요일 날 오신 아빠들 표정이 안 좋아요.

도대체 이거 만드는데 이 여편네가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일요일에 쉬어야 되는데 아내가 해야 된다고 신청을 해서 억지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지나는 동안 아빠들 사이에 전투적인 표정이 보여요. 옆 사람보다 더 잘 만들어야 돼. 그거를 달아놓고 1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새를 낳았어요. 이거를 보러 오십니다.

과학의 활동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와서 뭔가를 만들고 다음 달에 오고 다음 달에 오고 계속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다가 1년 다음에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줬는데 그냥 들어와서 앉겠어요? 사람도 새집중후군 이런 거 느끼잖아요. 애들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과학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과학은 커다란 네 개의 전시장이 있고 네 개의 실험실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실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만 칠천 명 정도가 실험하는데 72%가 청소년이고 20% 이상이 성인입니다. 8% 정도가 어린이예요. 8%의 어린이는 어떻게 왔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100% 어린이인데 어머니가 애는 중학생이라고 온 아이들이예요. 올 때마다 어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그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고 있는데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어른과 같이 오라고. 최소한 큰 형하고 같이 와야 되는 겁니다.



영국에 보면 잉글리시 뮤직 익스피리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음악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 공간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성인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오면서 성인들이 이 공간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충분히 경험하게 할 기회를 주는 거죠.

딸과 함께 이 공간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딸이 아빠가 과학관을 열 줄 알고 여기에 와서 힘들 줄 알았는데 여기서 미치듯이 노는 걸 봤어요. 거기서 청소년들과 말도 통하지 않는데도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통할 수 있었던 거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도서관은 가려면 일단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글씨를 읽으면 갈 수 있는 곳이고요.

과학관은 과학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최소한의 과학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지식을 자기가 혼자 다 할 수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서민들이 다양한 과학 활동을 하고 그거를 전시하고 미술관과 과학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국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곳이 접점기술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머니와 부모님들이 함께 활동을 한다면 접점 기술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왜 하는데?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거는 많은 과학 프로그램 중에서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좋아했어요.

내가 만든 집에 새를 키워야겠다. 그래서 1년 동안을 기다리더라고요. 내가 과학 활동을 하는데 왜 하는 걸까. 지식을 쌓으려고? 그러면 되게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놀려고? 놀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이 세상을 이해하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기술이 뭔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하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관이 많이 필요한데 많이 필요한 과학관을 어마어마하게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유아만을 위한 과학관이 아니라 노인과 어른과 청소년이 한꺼번에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 아이들은 의외로 많은 공간을 갖고 있고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과학관에서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상적인 공간으로써의 과학관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겠죠.

감사합니다.

-(박수)

-(신혜미) : 이정모 관장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과학관이 135개나 되는지 몰랐는데 오늘 새롭게 알게 됐네요.

아이들이 과학을 조금 더 일상적으로 만나고 과학을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보게 되는 것을 저도 바라고요. 앞으로 135개의 과학관이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들을 위해 열리기를 바라면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서 어린이를 위한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이었다면 도서관은 모든 연령대의 사용자가 주사용자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 도서관을 넣었던 것은 모두 다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그 이용자 중에 아이들을 배려하고 주체자로서 인정하는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 사례로써 느티나무도서관이 저희의 고마운 사례가 되어 줬습니다. 1999년에 하고 2007년에 지금의 용인에 이사를 하면서 또 다시 도서관의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동네 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제3의 공간으로 오랫동안 기능을 해온 도서관인데요.

저희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계속 지원을 해오고 공감을 해오던 공간이었지만 관장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 몇 번의 뭉클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로써 모든 사용자 개개인을 존중하고 복돋아 주는 공간이지만 특히 아이들에게 더 많은 복돋움과 더 많은 걸을 내주는 공간으로써의 의미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아이들이 개개인으로서 각자의 속도에 맞게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굉장히 세심한 부분까지 노력하신다는 점이 각각의 지점에서 뭉클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느티나무도서관의 박영숙 관장님을 모시고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세요.



-(박영숙)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박영숙) : 느티나무도서관의 박영숙입니다.

앞서 이정모 관장님께서 아이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다행이지요. 제목이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이었는데 우리 동네 애들한테 가서 우리 도서관 관장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소개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다 들고 나설 것 같아서 찢렸는데요.

좀 전에 헤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꼭 언제 우리 도서관에 오셔서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20년째 도서관으로 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 느티나무도서관이 도서관인 이유를 말할 때 늘 그 이유를 누가 물어보면 존엄함 그리고 자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들이 그냥 맥박이 뛰는 그래서 생물학적인 생명을 목숨을 이어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 가슴이 뛰고 무언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또는 어떤 의미 있는 것에 호기심을 갖고 그거를 꿈꾸고 시도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럴 때 정말 존엄한 인간으로써 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존엄함이 그 누구보다 나 스스로에게 와 닿기를. 나의 자존감에 우리가 자존감을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랐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순응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만드는 두려움, 불안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지 않을까.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데요. 그 간절함의 끝에 도서관을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건 물음표.

물음표였고 우리를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궁금하게 하고 질문을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비판적인 사유, 낯선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는 물음표, 그리고 복돋움.

도서관에는 교과서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시험도 없지만 세상 모든 배움을 존중하는 그런 응원과 북돋움이 그냥 그 도서관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나 학력이나 배경,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의 역동과 공명.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째 저희는 도서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IMF를 막 지나고 신도시에 막 개발바람이 불던 때였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건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른바 원주민방으로 불린 곳에 살았던 아이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던 곳이 철거가 되고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학교에서 점점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주민 동네 아이들에게 밀려서 자신들의 공간을 점점 잃어가는, 또 한쪽에서는 개발바람이 불어서 문화센터는 커녕 슈퍼마켓 하나도 제대로 없이 마구 아파트만 지어대는 동네에 와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교육, 그래서 아이들을 태우고 끊임없이 주변 도시로 학원을 데리고 다니는 그 사이에서 우리 동네의 느티나무 한 그루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운이 좋게도 집을 한 채 장만할 수 있는 돈이 생기면서 아파트 상가 지하에 아주 작은 공간을 열었는데요.

솔직히 도서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거 그 공간을 책으로 둘러싸고 누구나 편하게 와서 책을 빌려갈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도서관이 되더군요.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경쟁보다 어울림을 먼저 배우고, 그냥 저절로 자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서관 운동에 올인하기로 하고 저희가 새로 집을 지을 때는 공간이 만든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배웠고 그 배운 거를 구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간에 들어오기만 해도 내가 되게 귀한 존엄한 존재로 느껴질 수 있는 그 자체가 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도했던 게 사실은 설계하는 건축사님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상식적인 그런 논리로 지은 게 아니라서 안쪽에 천장을 굉장히 높게 만들고 커다란 창을 두어서 밖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에 들여다보이는 풍경을 보고 들어와 보고 싶어지게 그리고 반대방향으로 들어와서 책을 갖고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역동, 거기에 누구든지 들어와 보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그거를 충분히 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구석구석에 숨을 수 있는 공간, 편하게 등댈 수 있는 공간 또는 썸 정도를 탈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물론 다락방의 만화만 가득 있는 다락방에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사서들이 뛰어와서 관장님, 지금 가보셔야겠어요. 이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 말랑말랑한 아이의 사랑이 싹 틀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그 나이에 그다지 다른 사람들에게 염장을 지르지 않으면서도 썸을 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왜 그렇잖아요. 청소년들의 감성을 부추기는 그런 책들이 도서관에 가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몇 년 전에는 전철역에 출퇴근 시간이면 정말 이 세상의 지구가 돌아가는 것보다 더 빨리
떨 것 같은 사람들, 그렇게 빠르고 분주한 공간에도 반전. 그곳에서 책을 만날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하게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말없이 말을 거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 공간만으로 굉장한 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환대

“여기라면 우리도 괜찮겠군”

빈둥거림의 묘약



느티나무도서관

(출처: 느티나무도서관)

이런 자세를 구사하는 아이들.

우리가 그 앞에 매뉴얼을 만든 것도 아닌데 알아서 굉장히 다양한 자세를 구사하는 아이들
때로는 저 휠체어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저희 동네의 아이들 중에 자기 소원이 저거를 타고
밑에 있는 슈퍼까지 가보는 거래요. 저희 도서관이 약간 경사 진 아주 나지막한 경사가 있는데
그냥 이 도서관 안에서만 타고 다니기에는 이게 성이 차지 않는 거죠.

저거를 기어이 타고 저 밑에까지 달려갔다고.

그런데 아이들이 저렇게 휠체어를 좋아하게 되면서 적어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내가 또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 도서관 관장은 내가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 휠체어를 꼭 타야 된다는 거를 믿어준다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배우고.

‘아이들에게는 그저 아이다운 정말 아이답다는 건 굉장히 어른들이 만들어준 어른들의 기준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동안.

그래서 저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는 도서관이 가르치지 않는데도 배우는 아니 가르치지 않아서 더 크게 더 깊게 더 넓게 배울 수 있는 배움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이 저희를 응원했어요.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미국에 있는 알바디시에 있는 프리스쿨 거기서 그 선생님이 쓴 얘기는 아니고요. 프리스쿨 얘기를 담은 책인데 거기서 있었던 워크숍에 왔던 조셉 챗터 피어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원래 태어날 때 배움이라는 것에 하드웨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장치에 제가 파워포인트라는 소프트웨어를 써서 사진도 넣고 글자도 박아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컴퓨터가 부팅되게 만드는 기본 것인 것처럼 깔려있는 아이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를 책이 알려줬고 눈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저런 공간을 열어놓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거기서 나이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저마다 각자의 성장의 드라마를 그려가는 사람들을 그저 바라보는 것.

그 안에서 저희가 발견한 정말 보석 같은 힘이 바로 몰입이었습니다.

책과 사람이 만나서 빛어지는 화학작용 그리고 거기서 대여섯 살 아이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냥 저절로 숨을 죽이게 만드는 몰입의 힘. 저희는 거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몰입이 일어나려면 필요한 게 동기더군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는 공간, 시간, 그리고 자기들이 친구들을 모으거나 동생들을 꺾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니 아이들은 정말 굉장한 몰입을 발현하더군요.

더 꼬맹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건 마니또, 마니띠라고 이름을 붙여서 해마다 청소년들과 대여섯 일곱 여덟 살 아이들이 짝을 지어서 주말마다 만나는 건데요. 처음에는 멀뚱멀뚱 서로만 쳐다보고 한 시간이 어떻게 가나 이랬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정말 책을 읽기 위해서 모였던 아이들이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역동적인 관계와 활동을 구사하면서 도서관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했던 건 명석을 까는 일이었습니다.



이만큼 멋지지는 않지만 그저 도서관에 책꽂이와 의자를 치우고 우리 모두가 관객이 되어 주는, 이걸 가까운 학교에 있었던 뮤지컬 동아리 아이들이 빨래라는 뮤지컬 보신 분 있으세요?

그 뮤지컬을 굉장히 멋지게 공연을 했는데요.

저때 저희는 그냥 아이들이 무대를 만드는 데에도 그런 거 위험한데 안 된다고 하지 않고 그냥 연장통을 내어주고 때로는 이걸 망가뜨리면 너희가 어디 가서 알바를 해서라도 이걸 다시 물어낼 거야라는 모종의 협박 그리고 너희가 이걸 하다가 간식을 먹고 나서 다 치우고 가야 할 거라는 끝없는 잔소리, 이런 정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아이들이 멋진 무대를 만들어내는 걸 보았고 저때는 우리가 모두 관객으로 감탄하면서 환호를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때 정말 제가 아름답다는 말이 좀 오글거려서 안 쓰는 표현인데요. 저 무대 뒤에서 서로에게 화장을 해 주고 자기가 직접 인두를 가지고 와서 전기배선까지 살피고 저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어내는 아이들, 그 설렘 그리고 그 무대에 올라섰을 때의 긴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저런 순간들이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브란의 이야기가 맞았구나.



아이들은 우리를 거쳐서 왔지만 우리들에게 나온 건 아니고,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생명이란 절대로 뒷걸음질 치는 법이 없고 그래서 늘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시간, 우리가 꿈에서도 가볼 수 없는 내일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공을 들이려고 했던 건 저런 무대를 빛어낼 수 있는 아이들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거리였어요.

참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도서관에 오셔서 나 진짜 애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애들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잘 들어주고 다그치지도 않는데 소통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나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든 들어줄게라고 아이들만 바라볼 때 오히려 약간 겁먹고 뒷걸음질 치거나 움츠러들게 만들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봤던 게 남의 아이랑 남의 부모님들끼리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너, 진짜 힘들겠다. 그거 아줌마가 알아. 그런데 너 좀만 있어 봐. 그거 괜찮아져 라는 응원.

아이들도 아줌마 그러지 말고 아저씨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 봐요. 문자를 보내보세요. 이런 너무나 지혜로운 조언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며칠 이따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도 돌아가서 믿기지가 않았다고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멘트를 할 수 있었는지 녹음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그런데 그 똑같은 질문을 당신의 아이가 했었다라면 '너는 또 쓸 데 없이'라고 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해마다 하면서 배웠습니다. 아, 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리가 있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패럿이라는 활동도 했었는데요. 애들을 가르치려들 게 아니라 청하는 거죠. 우리 주말에는 대부분의 자원활동가들이 주부인데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 와서 같이 자원활동을 해 달라.



패뻏이라는 게 ‘패밀리가 뻏다’라는 TV에서 했던 오락프로그램에서 따온 거였는데요.

굳이 패뻏이라고 했던 건 가족끼리 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아이도 있고 친척집에 사는 아이도 있고 해서 다양한 패밀리가 뻏습니다. 이웃집 아이하고 온 사람도 있고 아이 친구하고 온 사람도 있고.

또 다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한테는 치사하게 걸레를 손에 쥐어주고 저기 닦고 이래라 하면서 책을 빌려주는 카운터에 어른들이 주로 앉고는 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애들을 불러서 ‘이게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어.’라는 걸 물어본다든지 애들이 옆에 있다가 답답해서 ‘내가 해볼게요.’라고 하든지.

제일 재미있을 때는 아주 까탈스러운 좀 힘들게 하는 이용자가 왔을 때 전원이 합심해서 한 편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봤는데 반납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 뒷모습을 보면 뭔가를 돌보려고 하고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과업을 함께 수행해가는 파트너가 되는 거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아이를 위한 공간이라고 그러면 우리 동네 아이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럴 겁니다.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여기는 아이들을 부러먹는 도서관이에요.

그거를 이제 품위 있게 이야기하면 곁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저렇게 구석구석 살핍니다.

선반이 없어졌어요. 뭘 부탁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찾아달라거나, 그다음에 복잡한 철자를 써야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미소를 짓는 모습의 부탁.

일일 사서였는데 최근에 열정적으로 사서를 맡았는데요. 자기가 부쩍 좋아하는 사서의 자리에 와서 안에 있는 사무용품까지 만질 수 있고 사람들을, 이름표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상징물처럼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계속 저희는 걸을 내준다는 명분으로 만들고 있고.

대신에 흔히 청소년자원활동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정으로 몇 시간을 했는지 시간확인서 정도만 가져가야 하는데 저희는 그럴 때는 이렇게 정중하게 누구누구가 함께 해 주어서 참 즐거웠고 든든했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은 책들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 꿈을 주겠지요.'라고 하면서 응원이 담긴 확인서를 아주 정중하게 건네면서 악수를 합니다.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층에서 존재하더라고요.

굉장히 늦게 스위치가 켜지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 중에는 우리 동네에서 특수반, 고등학생이라서 수업시간에 그대로 같이 앉아있지만 한글을 아직 다 읽지는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도서관이 굉장히 뭔가 하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저희는 특히 이용자들이 꼬맹이들도 찾기 쉽게 라벨을 붙이는데 굉장히 몰두해서 붙이는, 그래서 와서 자기 자리를, 자기의 일거리를 가지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 빵은 지난달에 8년 만에 도서관에서 입을 열기 시작한 청년이 있는데요.

정말 이 세상 어디에도 그 친구의 자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학교는 어찌어찌 다니고 졸업은 했지만 같이 졸업한 청년들에게 물어도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데 이 친구가 8년째 도서관에 와서 구석구석에 숨어서 지내다가 최근에 드디어 제빵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저 빵을 잔뜩 만들어서 와서 우리 사서에게 건네서 저거를 빵만 아니었다면 저희가 먹지 않고 그대로 간직했을 텐데.

그래서 아, 저마다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출처: 느티나무도서관)

그리고 또 누군가는 정말 그냥 쉽게 아물기 어려운 누군가한테는 평생 갈 것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뭔가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힌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게 된 데에는 아마 저희들이 너무 호들갑스럽게 ‘아, 너희 힘들겠구나.’라고 하면서 나서서 위로하려고 하거나 도움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어,

너는 누구랑 사니?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니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당황스러웠다고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래서 일을 하고 바쁘게 살면서도 책을 찾고 찾아오는 청년들을 보면서 저희가 ‘아, 덩덤함 혹은 담담함이 필요할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다 자랐을 때 계속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언제 다시 만나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도서관에 오는 이유를 저희도 김이삭 관장님처럼 그런 설문을 하지는 못했는데 아이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기 오면 이상하게 자꾸 하고 싶은 게 많아졌다. 그리고 어른들을 선생님이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이 친구 같은, 때로는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뭔가에 미쳐서 뭘 저렇게 열심히 하는 어른들을 친구로 만날 수 있고 언제나 내가 오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 같은.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은 접고 그냥 어른들이 잘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런 곳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영상으로 보셨던 컬렉션, 저렇게 끊임없이 물음표를 발견하게 만드는 컬렉션으로 도서관을 채워 넣고.



(출처: 느티나무도서관)

저희는 사회과학, 기술과학 이렇게만 분류를 해놓는 것이 아니라 저게 주제입니다. 사회과학 대신에 꿈을 묻는 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꿈을 묻는 거래요. 그래서 저 컬렉션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렇게 컬렉션이 꽃혀있고요.

저 가운데서 때로는 이웃들이 모여서 아무리 어린 아이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경청 받는 경험을 통해서 서로 응원 받고 정답은 없지만 그저 생각을 나누고 영감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속에서 공공성이라는 게 뭔가를 다시 저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을 시작하게 했던 건 공공성 때문이었는데요.

그저 저렇게 차별이 없는 공공성만이 아니라 저희는 그동안 주로 공공성이라고 하면 제공되는, 그래서 획일적으로 되기 쉽고 대상화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체득하면서 실천해가는 공공성.

공공성 ?

'주어지고 보장되는' 밋밋하고 획일화된 공공성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 체득하고 실천해가는 공공성

유연하고 섬세한, 느슨하고 두근거리는,

다양성, 역동, 상상력이 펄펄 살아있는 공공성!



(출처: 느티나무도서관)

그래서 유연하고 섬세하고 느슨하면서도 두근거릴 수 있는 그래서 다양성이 오롯이 존중되고 역동이나 상상력이 팔팔 살아갈 수 있는 공공성을 배우고 지금도 실천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지금까지 이렇게 스무 해 보내왔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간절하게 꿈꿔왔던 꿈꿀 권리, 이거를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의 오랜 바람이었던 우리 동네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청년이 된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연애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일하고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이따가 대답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신혜미) : 박영숙 관장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어떠셨어요.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남겨주시고 가신 것 같은데요.

20년 동안 동네에 제3의 공간 어쩌면 제1의, 제2의 공간을 넘나들며 존재하던 공간이기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을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휴식이 되는 휴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도 하고 때때로 썸도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나지만 곁을 내준다는 용어가 기억에 남았어요. 아이들은 어느 공간에 가면 생각보다 환대받을 수 있는 경험들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산업 공간에 가면 부모님들이 환대를 받는 거지 아이들이 환대받기 어렵고 일반 공공공간에 가면 말썽꾸러기 취급을 받기가 일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무 과한 서비스를 하지 않지만 곁을 내주는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별적으로 각각의 관장님들에게 다른 콘텐츠를 갖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제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대화를 진행해볼 텐데요.

들으시면서 아, 이런 점은 달랐네. 이런 점은 같은 것 같다. 이런 점은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으로 생각해 주셨던 거를 인지해 주시면서 대화를 재미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의 연사님을 앞으로 모시고 대화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저희도 조금 편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잠깐 안내를 했었는데.

슬라이드에 접근을 하시면 코드번호 #2 0524를 넣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많은 분들이 못 보셨나 봐요. 질문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세 분의 관장님을 한 자리에 모시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모두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를 진행을 시작해볼 텐데요.

조금 쉬운 질문부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마 무시한 질문들을 준비를 했지만 발표를 오늘 들으셨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서로의 공간들을 많이 만나고 들어보셨을 분들이신데 서로에게 혹시 그 이전에도 영감을 받으신

게 있으신지 혹은 서로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신지 한 분만 뽑아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모) : 저는 느티나무도서관은 가 본 지는 얼마 안 돼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가봤는데요. 멀더라고요.

그런데 뭐였죠? 네, 헬로우뮤지엄도 좋았던 공간이죠.

그런데 그전에 제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있을 때 ‘떠들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이거는 없었거든요. 굳이 과학관이 왜 조용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박물관에서 만지지 마세요, 이거는 했어요.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헬로우뮤지엄에 가니까 만지지 마세요 정도가 아니라 작품에다가 낙서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렇게 재밌게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학관에 가면 전시물이 있어서 아예 전시물을 만지지 말라고 하면 만지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전시물을 만지게 하면 어떨까? 무조건 만져라, 전시물을.

그래서 우리 과학관은 전시물을 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성인들은 6개월을 만져도 안 망가져요. 그런데 아이들은 몇 시간만 만지면 망가져요. 참 대단한 손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게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다. 망가지면 고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고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과학관들이 실력이 쌓아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지지 마세요가 아니라 만지세요로 하니까 과학관이 편한 거예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그거를 헬로우뮤지엄이 없었으면 과감하게 그거를 못 했을 것 같아요.



-(신혜미) : 관장님이 헬로우뮤지엄을 많이 갔었는데 이름을 까먹으신 거고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고요. 김이삭 관장님은?

-(김이삭) : 사실 저희 뮤지엄이 어려운 이름이 아닌데요. 농담이고요.

저희 미술관이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작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작품에 손을 대는데. 그런데 오늘 했었던 것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참여하는 작가라든지 공간을 만드는 분들한테 한번이 아니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다른 미술관과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를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가 아니지만 미술관에 가거나 특히 어떤 촉감 자극이 만져지는 질감표현이 많이 드는 곳은 너무 만지고 싶어요.

그리고 저게 어떤 느낌일까? 왜 저런 재질을 썼을까? 이런 작품들을 전시하면서 만질 수 있는 보조를 안 두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자극해갔으면 뭔가 호기심을 갖게 했으면 만질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왜 만지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작품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 이런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들이 작품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만질 수 없는 작품은 그 질감이라든지 아이들이 만지고 싶어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대체해서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신혜미) : 관장님이 아이가 아이답게 작품과 예술을 만날 수 있게끔 하시지만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아이들이 예술을 예술답게 즐길 수 있게 굉장히 많은 가이드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관장님은 누구에게 어떤 영감을 받으셨는지.



-(김이삭) : 두 분에게 다 여쭙보고 싶은데요. 그런데도 박영숙 관장님께 먼저.

느티나무도서관은 헬로우뮤지엄 금호동에 지을 때 많은 영감을 받았고요. 관장님이 쓰신 책 두 권에서 제가 특히 어떻게 아이들을 대할 것인가, 그리고 관객을 생각할 것인가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영감을 받았기보다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쭙보는 거예요.

관장님 지치지 않으시나요?

(웃음)

20년 계셨다고 하는데.

-(신혜미) :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박영숙) : 당근 지치죠. 어떻게 안 지쳐요. 지칩니다.

언제부터인가 나이도 조금씩 들어가니까 만나면 아프지 말라는 인사보다는 잘 아프고 잘 살자.

지치지 않고 버티다가 부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냥 잘 아프면서 살듯이 잘 지치면서 적당하게 그러다가 또 조금씩 힘을 얻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되게 묘하게 내려놓으려고 하다가도 자꾸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거기도 그러시죠?

-(신혜미) : 사립공공공간을 운영하시는 두 분의 관장님께서 오랫동안 10년 이상, 20년 넘게 아이들과 가족들과 일반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고민들을 쌓아 가시고 그 와중에 지치실 때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보이는 지점들을 보일 때마다 앞으로 나가시는 과정들이 쌓여서 지금의 이런 결과들이 이런 이용자들이 행복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오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요. 박영숙 관장님은 두 분 중 어떤 분에게 영감을 받으셨는지?

-(박영숙) : 그러게요.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빨리 마치고 역동적으로 질문을 받는 쪽으로 가죠.

저는 영감이라기보다도 조금 아까 지치냐고 물어보셨을 때도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이정모 관장님을 뵈고 나면 되게 마음이 커진다고 하나요. 많은 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보면 짧아도 만년, 보통 단위가 억년 이러시잖아요.

얘기를 하시면 억년, 몇 십 억년 이런 단위로 가니까 지금 겪는 일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훨씬 괜찮아지고요.

-(이정모) :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과학 활동 갖고 지치지 않거든요...(중략)..

원대한 꿈을 꾸지 않고요. 굉장히 작은 꿈을 꾸니다.

힘들 때 보면 큰 꿈을 꾸면 내가 거기까지 달기가 힘들잖아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매일 징검다리 하나만 생각해요. 멀리를 안 보고 멀리는 못 가도 두 번째는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한 걸음에 만족하면 길게 갈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 꿈을 꾸지 말고요.

소년은 비 엠비셔스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것만 하면 내가 성취가 있고 그 성취 속에서 내가 다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내가 큰 생각을 하면서 이 우주를 어떻게 할까, 세계 평화를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아주 작은 단계 하나갓고만 해 나가면 그 힘으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박영숙) :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맨날 억년, 십만 년 이런 걸로만 힘을 주시더니 이렇게.

도서관에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 예를 들어 아까 8년 동안 저희가 덤덤한 듯 했지만 늘 마음을 쓰고 있었던, 뭔가 자리를 만들기를 기대했던 사람, 그럴 때 한 사람에게 8년을 쏟아야 한다면 이게 할 일이나 하는데 할 일이 아닌가.

작은 관계, 작은 변화, 작은 성장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쌓이면서 사실 그런 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힘을 얻고 갑니다.

-(신혜미) : 서로에게 영감을 받으신 걸 여쭙봤더니 이 자리에서 서로 영감을 받고 계시네요.

-(이정모) : 이 질문을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신혜미) :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어린이와 청소년, 이거는 어린이만을 위한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제3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이 2019년에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공간에서 노력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가지씩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제가 합쳐서 같이 드렸습니다.

-(이정모) : 저는 미술관이 먼저 쓰여 있어서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마이크를 안 드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기가 힘들었어요. 아이들에게 과연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예술적 감성, 소통능력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회복가능성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실패하고 실패한 거를 통해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실패를 늘 일상적으로 해보면 그 실패에 익숙해져서 큰 실패가 닥쳤을 때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쉬었다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작은 실패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를 더 잘 배우기 때문이거든요. 과학에서도 이 실패가 필요할 거야. 그러면 그 실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이 천재가 아닌 것처럼 실험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요. 매일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설을 세우는 데도 실패하고 가설에 따라 실험할 때도 실패하고 심지어 자신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논문을 할 때도 실패하는 게 과학자의 삶인데 과학관이 바로 그 실패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아주 장으로써 작용을 하면 여기서 내가 과학자가 되던 과학자의 꿈을 꾸든 그게 아니라 모든 서로 과학을 해야 되는 시대에 과학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회복가능성이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혜미) : 과학관에서 그런 아이들의 실험을 자주 할 수 있고 실패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특히 정성을 들이고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정모) : 실험을 할 때 학교에서 1번, 2번 이렇게 하잖아요. 대학교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기본적으로 테크닉을 알려주지만 실험을 할 때 각자 다른 목표를 설정하게 해요. 목표 설정 자체가 대부분 잘못 됐어요.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서, 어떤 친구는 끝에 가서 실패하고 어떤 친구는 처음에 실패를 하죠.

그런데 그 실패를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실패한 다음에 내가 왜 실패하는지를 동료, 선생님, 과학자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실패를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다음번에 하니까 되더라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 공간이 많아야 되고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도 공무원 조직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요. 사립과학관이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부러운 것도 있어요. 사립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 나갈 수도 있는 게 부럽지만 또 장점은 그래도 공무원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구나.



-(신혜미) : 오늘 대답이 굉장히 제 생각대로 안 흘러가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고 학교나 집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관이 일상적으로 아이들에게 열린다면 이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김이삭 관장님은 어떠세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데에 조금 더 정성을 하고 계시는지.



-(신혜미) : 2019년에 아이들을 위해서 미술관이 제3의 공간으로써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헬로우뮤지엄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고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이삭) : 2019년에 글썸요.

저는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같은 구성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 청소년, 어른 모두에게.

지금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이 아니라 학교 밖에 널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공간들이 꼭 필요한데 사실은 개인이, 민간이 공공성을 가진 공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운영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공간들이 그럼에도 필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잠시 자리에서 관장님 발표하신 거를 들으면서 아, 저렇게 누군가를 환대해 주고 지켜봐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구나. 그리고 이런 공간들을 미술관, 도서관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다시 카테고리를 지어야 할까.

미술관이라는 카테고리보다 조금 더 다른 분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국공립 뮤지엄들이 해야 하는 어떤 굉장한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해야 하는 조금 더 따뜻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종류의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열려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헬로우뮤지엄은 2019년도에 생존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박수)

-(신혜미) : 저는 이런 공간들이 사회에서 계속 남아서 더 많은 미술관, 더 많은 공간들이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하기 위해서 헬로우뮤지엄의 행보를 응원할 거고요. 박영숙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영숙) : 정말 난감한 질문이었어요. 아이들을 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자기들을 위한 거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세 개의 관이 같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정모) : 느티나무도서관에서 나눴던 이야기잖아요.

-(박영숙) : 그래서 저희도 계속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거를 기대하고, 작품을 정말 소중하게 이거 내가 잘 지킬 거야 이런 마음도 갖게 되지만 그 위에 내가 뭔가를 얹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게 다 존중되는.

우리끼리 어떻게 합체를 시켜볼까요?

-(이정모) : 저는 그런 점에서 마포종합도서관 이런 곳이 있는데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관이면서 미술관도 갈 수 있고 과학관도 갈 수 있고 메인 공간도 갈 수 있고 다 섞여있는 곳이거든요. 일단 과학관을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이유는 땅값이 비싸서예요.

큰 거를 지어야 되니까 과학관은 다들 전시관으로만 생각하니까 큰 공간이 필요했는데 과학관이 전시관이 아니라 실험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큰 공간이 필요가 없고 이미 있는 공간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게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관은 서울만 해도 걸어서 30분만 가면 어디를 가든 도서관이 있고 상당히 많은 면적이 열람실입니다. 책을 보는 곳인데 이제는 자기 방에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자기 방에서 공부해도 되고 카페에서 공부해도 되고 굳이 서울의 비싼 땅에서 자리를 칸막이를 해서 책을 읽게 놔둘 필요가 있겠는가.

도서관이 책을 읽는 곳이 다 차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열람실의 하나 정도만 과학관의 실험실로만 바꾼다면 그 안에서 도서관에서 실험실을 관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과학관에 가서 운영하면 되는 거니까.

또 마찬가지로 미술활동도 전시를 과학관에서 해도 거기서 해도 되는데 다양한 미술 활동들을 먼 곳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잘 돼 있으니까 도서관을 활용해서 섞여 나가면 좀 더 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도서관을 가는 사람과 과학관을 가는 사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는 도서관에 가서 과학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미술관에 가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박영숙) : 그러한 시도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그거를 지원을 얻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2019년에 도서관이 무엇을 할까.

저희는 19년만이 아니라 올해만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계속 우리나라에서 양육기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제일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양육기간이 길지 않을까. 문제는 그게 점점 길어지고 있고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이러면서 다들 30대가 되어도 자립, 독립을 하지 못하고 양육대상으로 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아이들 쪽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인권이 침해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아주 작지만 작은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동기유발이 돼서 배우고 뭔가에 몰입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잠깐 드린 것처럼 도서관에서도 계속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양육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배움의 시기, 배움과 일과 이런 게 다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서로 바라보고 말을 주고받고 책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눠서 영감을 주고받는 그러한 지적성장을 하면서 그게 동시에 근육을 움직이고 내 손 발을 움직여서 뭔가를 해보는, 이 세상에 뭔가 작용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보고, 그게 또 내가 먹고 사는 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함께 이 동네에서 누가 누구를 양육하고 돌본다가 아니라 서로를 같이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누구나 꿈꿀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바라면서 도서관을 열고 책으로 말을 걸었다면 이제 그 꿈을 살아보자.

그리고 배움과 일상의 삶이 따로인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그저 뭔가 여가의 공간, 교양의 공간이 아니라 정말 그냥 달그닥거리고 일상 속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고 또 다른 길을 찾는 그런 공간으로 가려고 지금 좀 물리적인 공간까지 결심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수)

-(신혜미) : 2019년에 청소년들을 위해, 이 친구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관점이기보다는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구들이 넘나들면서 배우고 삶과 일상과 진짜 스스로 배움을 넘나들 수 있고 스스로 본인의 삶을 차근차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와 기회,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리고 느티나무도서관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도서관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저희가 대담에서 준비한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마다 헬로우뮤지엄, 서울시립과학관, 느티나무도서관 같이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려면 사회에 무엇이 필요할지. 이런 제3의 공간이 사회에 있으려면 어떤 곳이 필요할지를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이삭 관장님 먼저 대답해 주실까요?



- (김이삭) : 제가 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 생각한 게 있어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관장님 도서관을 갔던 생각에 잠기면서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 질문하고도 맞닥뜨려지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굉장히 서울에는 작은 도서관이 생기고 심지어 구청의 로비도 책마루라든지 해서 책이 가는 곳마다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느티나무도서관을 갔다 온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벌써 한 삼사 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도서관을 갔을 때 받았던 영감, 아무튼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거기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책 하나하나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본 많은 공간들은 그런 도서관 혹은 도서전시관인지 모를 정도로 이것을 책을 보여주는 곳인지 책을 진열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탁인데요.

더 많이 알려지셔서 느티나무도서관 같은 방식으로 책을 대하고 책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지점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고요. 이런 공간들이 더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어제까지는 아, 이거 어떤 재정적인 지원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을 살아서 계속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사람과 기관의 철학이나 활동들을 계속 연결할 수도 있는 그런 매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헬로우뮤지엄은 우리나라에 다른 뮤지엄에 비해서 많은 홍보활동이라든지 소통활동을 잘 하는 기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술관이라는 어떤 출생적인 한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아직은 서툰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모) : 이런 일이 특별하게 이런 좋은 공간에 모여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일상적이 되려면. 그래서 필요한 건 뻘해요. 돈과 사람이거든요. 돈과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동안 우리가 돈을 마련하려고 힘들고 사람들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살만한 나라인데 나랏돈으로 하자고요.

정확하게 정책을 만들어내서 세금을 가지고 이런 공간에 모여서 만들고 일할 사람이 투입이 돼야죠. 내가 세상을 젊은 사람들과 함께 바꿔보겠다는 것이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정말로 선구자적으로 해온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모델로 해서 공공으로 받을 때가 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투표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수)

-(박영숙) :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헬로우뮤지엄이나 과학관이나 저 같은 사람들을 갖고 되게 특별한 사례처럼 앞에 제3의 공간이라고 말이 붙은 것도 그런데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없어져야 하는.

그러니까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의 교육체계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경제구조라든가 여전히 돌아올,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경제성장률 같은 거를 기대한달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저는 이러다가 망할 수 있다는 거를 다들 정신이 번쩍 들도록 깨닫고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진짜로 뭐가 필요한가.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치열하게 생각해보고 그거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대범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3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3이라는 게 주류에서 벗어나 있다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로울 수 있고 마음대로 뭔가를 상상하고 시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제3에서 그동안 모색해왔던 것이 주류가 되어야 이 인간의 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에이아가 인간을 넘어설 거라는 이런 시대에 로봇 프루프한,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고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할.

지금까지는 국영수 과학 이런 거 공부하느라고 밀쳐왔던 휴먼리터런시 이런 게 될 수 있고 그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결단을 위해 정신을 좀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수)

-(신혜미) : 말씀해 주셨던 이런 사례들을 조금 더 주류로 더 많은 사례로, 사례로 존재할 수 있지 않게 일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하려면 저희가 이런 포럼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변화들도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포럼이 여러분들에게도 제3의 공간이라는 또 다른 인식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지만 이런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퍼져서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정신 차리고 하실 수 있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대답을 준비했구요. 저희가 시간이 예정한 시간보다 5분 지났어요. 그런데 질문을 받았으니까 질문 중에 가장 많은 보탬이 되는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관찰으시겠어요?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 질문만. 가장 많은 보탬이 되어 주신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모바일로 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제시된 제3의 공간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이 대부분의 공간인데 제3의 공간이라는 좀 대안적이고 어찌 보면 혁신적이고 열려있는 공간 운영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정모) : 지금은 사실 많은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는 왜 그러냐면 새로운 모델에 대한 생각은 다 있지만 이게 과연 될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흔히 하는 말이 해외의 선진사례 모아보라고 하는데 그거 없어요.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첫 번째 사례가 되고 우리가 배워 가게 될 거죠.

그래서 우리 과학관에서도 했던 모습들을 처음에는 두려워할 수 있는데 작년에 뭐 하고 상 받고 하면서 다른 과학관에서도 이게 되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을 거쳐 갔던 나 같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자신 있게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 하게 되는 거죠. 한두 명이 할 때는 힘들지만 그게 대여섯 명만 돼도 커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커져나가게 되면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성공하고 그다음에 빨리 된 것들을 얼른 나눠서.

‘나는 이게 잘 됐어가 아니라 내가 되고 있는데 잘 된다면’이 아니라 ‘돼 가고 있는 중에도 빨리 줘서 설득해서 이거를 같이 해보자’라는 동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방법이더라고요.

그것만 되면 우리나라 되게 역동적이어서 순식간에 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이 50년 걸린 거 우리는 3년이면 될 것 같아요.

-(신혜미) : 혹시 또 첨언해 주실 분?

-(박영숙) :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한편으로는 로봇이나 에이이아가 많은 거를 대체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일,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런 일에 훨씬 더 많은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일하면서 그런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조직구조,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특히 도서관은요. 되게 행정관료체계가 지금 도서관 서비스하고 되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진짜 다 그런 실적이나 이런 거를 떨쳐내고 진짜 중요한 성과에 매달리고 해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역량이 쌓일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김이삭) : 저는 그냥 최근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체감하거든요.

처음 직장 생활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의 문화라든지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C Program 같은 회사도 생겼고요.

이런 자리도 마련해내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이 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지금 해오던 방식이 아닌 더 좋은 방식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해도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더 편한 거,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더 바람직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선택에 대해서 서로 지지해 주고 응원하는 그런 장이 있다면 아마 더 빨리 혁신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신혜미) : 공공의 공간이어도 하면 할 수 있고 하기 시작하면 더 많이 퍼질 거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좀 더 좋아지고 있어서 이런 사례나 바람직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할 수 없지만 각각의 열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계실 것 같아요. 돌아가셔서 한두 가지를 시도하시면 그 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동료들과 논의를 해가시면서 조금씩 변화해가시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

-(신혜미) : 저희가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공의 공간. 그리고 한 명의 인격체로서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하고 마음껏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 그리고 아이들이 개별로 각자의 속도로 일상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제3의 공간들이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에서 나아가서 더 많은 공간으로 퍼져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간이 도시마다 생기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일 당장 무엇을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즐겨 찾는 제 3의 공간에 가서 속해있는 기관에 가셔서 이 질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는 더 많은 제3의 공간으로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자료는 2019년 C Program,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문화예술교육포럼에 대한 속기록입니다. 본 자료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C Program의 동의 없이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